

## 奉使朝鮮驛程日記 柏菴

1844년 조선 효현황후 김씨가 승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사 백준과 부사 恒興이 諭祭使로 조선에 다녀온 뒤 출간한 여행일기. 백준은 몽고 正藍旗人. 항흥은 漢人 鑲紅旗. 1844년 1월 12일 북경을 출발하여 2월 7일 압록강을 건넌 뒤 2월 21일 한양 입성. 유제를 거행한 뒤 사흘 만인 2월 24일 귀국길에 올라 3월 7일 압록강을 건너고 4월 1일 북경에 도착.

청조는 책봉-조공 관계가 단절될 때까지 대비나 왕비가 승하하면 빠짐없이 유제사를 파견. 이에 반해 월남이나 유구에 대해서는 국왕의 승하 시에만 유제사를 파견.

청초에는 조선 사행단 규모가 1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순치제 이후 규모를 축소. 백준의 사행단은 22명 정도로 추정됨(정사 수행인원 8명, 부사 수행인원 6명, 통관 3명의 수행인원 각 1명)

사절단의 이동거리와 시간이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청대 한중 교통사를 연구하는데 긴요한 자료.

중국의 四台子에 도착했을 때 조선인 差備官 김상순, 이상적 등이 노정을 적은 쪽지를 전달.

압록강을 건넌 후 의주부윤 등 조선관리의 영접을 받음. 국왕 역시 관리를 보내 영접. 이후에도 지나가는 지역의 관리들 뿐만 아니라 국왕이 보낸 관리들이 수시로 영접. 안주성에서는 평안도 병마사 윤의겸만 알현하게 하고 함께 온 이들은 알현을 면하게 했다는 기록(알현을 하러 온 이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 이후 수시로 유사한 일이 발생.

홍제원에서는 도승지 이경재와 좌의정 권돈인이 알현.

2월 21일 한성에 도착해서는 궁(창덕궁)으로 가 바로 유제를 행함. 먼저 “정사가 칙서를 받들어 명정전 동쪽 책상에 모셨다. 그 옆에 서서, 국왕이 섬돌 아래에서 예를 행하기를 기다렸다.” 이후 상복으로 갈아입고 魂殿으로 가서 “두 사신이 차례로 폐물과 제주를 바쳤다. 예가 끝난 뒤에 북쪽을 향해 서고 국왕은 북쪽 섬돌로 올라와서 남쪽을 향해 섰다. 국왕은 종친을 거느리고 상복을 입은 채 허리를 굽혀서, 칙서의 선포를 들었다. 예가 끝나고 곡을 했다. 끝난 뒤에 칙서를 받들고 望祭와 燎祭의 예를 이루었다. 좌우로 가서 궁전에 이른 뒤에 국왕과 공수하며 헤어지고...” 이후 다시 만나 다례를 행함. 국왕이 황제와 향태후의 안부를 묻고, 오는 여로의 날씨와 형편에 대해 물음.

22일 다시 한번 국왕과 다례를 행함. 조선 측은 다음 날 출발하겠다는 청 사신에게 “다음 날이 그곳 풍속에 꺼리는 날이라 하여 출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듭 거듭 성의를 다해 만류”. 그러기로 함. “글을 써달라는 청하는 자들이 어지러이 계속 몰려와서 응대하여 접대하느라 겨를이 없었다. 국왕이 종이 두 권을 보내서 글을 써달라고 청했다.”

23일 승정원 도승지 이경재가 臚儀(신의, 전별할 때 주는 예물)를 보냄. 이를 사양함. \*하지만

4월 2일 도광제에게 복명할 때 백준은 조선으로부터 贖銀 5,000량을 받았음을 보고. 애초에는 거절했으나 강권을 이기지 못하고 받은 것으로 보임. 3월 6일 기록에 “공문을 돌려서 은 5천량을 보존하도록 훈계했다.” 백준의 상주에서는 “장차 국경을 벗어날 즈음에 이르자, 또 다시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다. 심지어 冠을 벗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면서 만약 天使가 이를 받지 않으면 국왕이 반드시 그들을 중죄로 다스릴 것”이라며 애원한 것으로 기록됨. 도광제는 이듬 해 초 은 5,000량을 북경에 온 조선 사행을 통해 반환하도록 함.

24일 한성 출발. 국왕이 “천연두가 나서 아직 낫지 않아서 멀리 나가서 전송하지 못하고 남쪽 별궁에 와서 餞別하여 인사하고 궁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서도 국왕은 관리를 보내어 문안하게 함. 평양에서는 승정원 좌부승지 서원순을 보내 문안. 의주에서는 한성부 좌윤 김지조를 보내 문안하게 함.

구분	柏莖(도광 24년)	
	날짜	숙소
입경 노정	2월 7일	義州 龍安館
	2월 8일	龍川 良策館
	2월 9일	宜川 林畔館
	2월 10일	定州 新安館
	2월 11일	嘉山 嘉平館
	2월 12일	安州 安興館
	2월 13일	肅川 肅永館
	2월 14일	平壤 大同館
	2월 15일	黃州 齊安館
	2월 16일	文化 龍泉映波樓
	2월 17일	平山 東陽館
	2월 18일	開城 太平館
	2월 19일	驪州 披平館
	2월 20일	揚州 洪濟院
귀국 노정	2월 24일	驪州 披平館
	2월 25일	開城 太平館
	2월 26일	平山 東陽館
	2월 27일	文化 龍泉館
	2월 28일	黃州 齊安館
	2월 29일	平壤 大同館
	2월 30일	肅川 肅永館
	3월 1일	安州 安興館
	3월 2일	定州 新安館
	3월 3일	宜川 林畔館
	3월 4일	龍川 良策館
3월 5일	義州	
3월 6일	義州	